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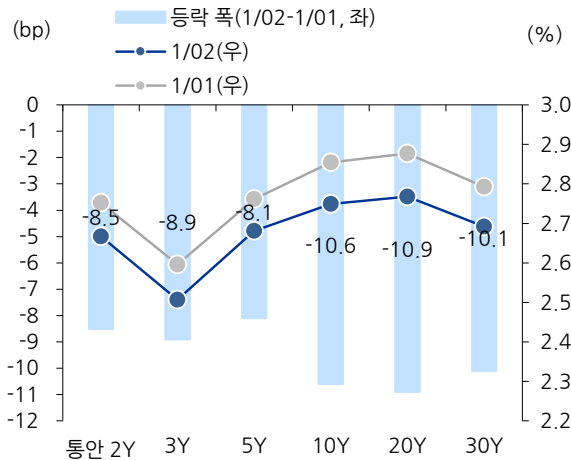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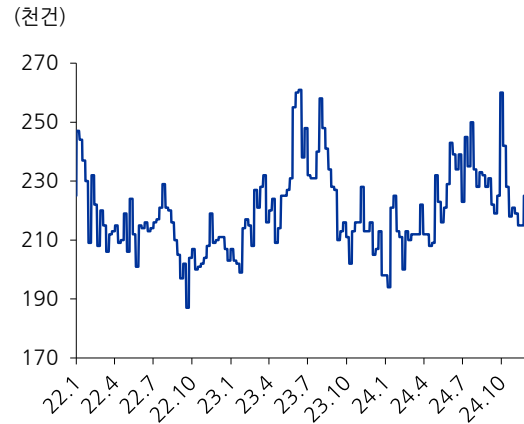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/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07%	-8.9	-11.9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49%	-10.6	-12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4.2	25.9	25.0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89	24.0	14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7.67	75.0	13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42%	0.2	-9.9
	미국채 10년물	4.561%	-2.4	-2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2.0	34.6	24.9
	독일국채 10년물	2.379%	1.5	6.0
	호주국채 10년물	4.434%	6.6	-0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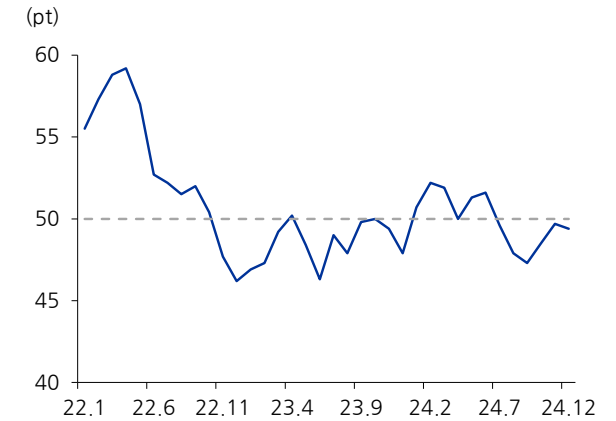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추이



미국 S&P 글로벌 제조업 PMI 추이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국내 기관들의 연초 자금집행으로 금리 하락이 두드러짐.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임명으로 정치 불안이 완화된 영향도 반영
- 한은 총재, 신년사에서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 커진만큼 통화정책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용할 필요성 언급
- 기재부, 25년 성장률 전망치 1.8%로 하향. 예산안 조속히 집행하되 추경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여 장 중 강세폭 추가 확대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 실업, 제조업 지표 소화
- 단기간 약세 과도했다는 인식 지속.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금리 하락했지만, 지표 호조로 낙폭 축소
-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, 지난 8개월 중 최저치 기록하며 예상 하회. S&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, 아직 기준선 밑도는 수준이나 예비치 대비 상향
- 한편 애틀랜타 연은 GDP NOW, 11월 건설지출 부진 반영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 기준 대비 대폭 하향
- 금일 한국 4분기 GDP,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등 발표 예정. 일본은 بانک홀리데이로 휴장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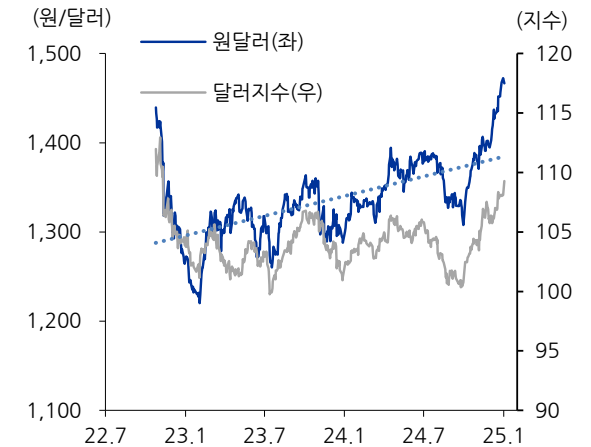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1/2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66.60	-0.4%	1.0%	-0.4%
	달러지수	109.29	0.8%	1.1%	0.8%
	달러/유로	1.026	-0.9%	-1.5%	-0.9%
	위안/달러(역외)	7.34	0.1%	0.5%	0.1%
	엔/달러	157.62	0.3%	-0.2%	0.3%
	달러/파운드	1.238	-1.1%	-1.2%	-1.1%
	헤알/달러	6.15	-0.5%	-0.5%	-0.5%
상품	WTI 근월물(\$)	73.13	2.0%	4.3%	2.0%
	금 현물(\$)	2,659.83	1.3%	1.0%	1.3%
	구리 3개월물(\$)	8,801.00	0.4%	-1.2%	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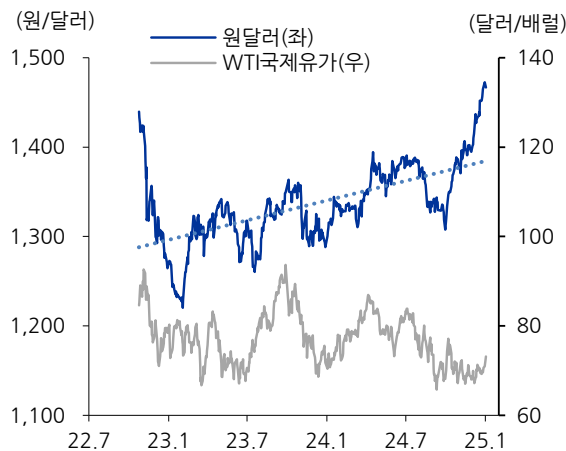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5.90원 하락한 1,466.6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69.10원 마감.
- 지난 연말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-원은 1,473원에서 출발했으나 개장 직후를 고점으로 점차 반락.
-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반영.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신년사에서 연금의 환해지와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련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약세 속 2년 여 만의 최고치 경신을 이어감.
- 유로화는 우크라이나의 대유럽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여파에 약세. 해당 루트는 유럽 전체 가스 공급의 5% 가량을 차지하며,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취약.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023년 1월 수준으로 상승.
- 미국 3분기 GDP NOW는 11월 건설지출 예상치 하회로 2.6%로 -0.5%p 하향되었으나, 12월 S&P글로벌 제조업 PMI는 49.4로 예비치 48.3 대비 상향. 주간 신규 실업급여도 전주대비 감소.
- 간밤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였지만 연금 환해지 경계감 등을 고려하면 1,480원 근처에서는 달러-원 상승 속도도 진정 예상.